

말조를 물이 보이면서 갑자기 거대한 도시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이어 平壤驛...
44년전 어머니가 일면식도 없는 안내인에게 과년한 딸을 남쪽에 데려다주라고 내맡기면서 불안해하며 기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뻥판 꽃술이를 흔들며 서 계시던 그 평양에...
승용차로 여를 빠져나와 우리를는 숙소로 정해준 놀라도가 바로는 앞에 내려다 보이는 모란봉 기슭...
정을 나누던 친지들이 어서 설레는 단어. 그런 데 초대소에서 내려다 보이는 高난도와 東平壤의 모습은 옛흔적을 찾아볼수 없게 변해 있었다.
나는 내가 태어난 58년지 내가 다니던 정의 여중(해방후 제림여중) 그리고 공산중학교 주변의 교화와 기도별원에 가고 싶었다. 돌돌생의 아버지 가 지배인으로 있었고, 당시 曹晩植 선생님이 열매되어 계셨던 고려호텔의 위

런느 계획에서는 다스려
면당한느권을 주었으나 대
동강변의 아를느리 농수버
들과 포플러나무는 옛것을
스게 해주었다.

대동강을 건너면서는 어
시 집시구들을 만날수 있지
적도 찾지 못했다. 그곳은
꿈이었다.

문으로 끝났다. 그러나 고
향은 마음대로 찾을수 있
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통영을 하루속히 이루어
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平壤가는길목 벌거벗은산 인적없는 마을 삭막

粒

平壤가는길목 벌거벗은산 인적없는 마을 삭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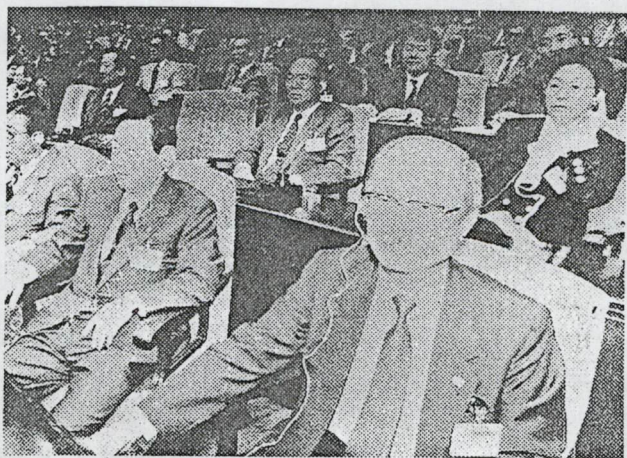


平壤교외의 주택단지. 실향민들이 이제 다시 평壤을 찾는다
해도 옛 동명 거리명만으로는 도저히 위치조차 가늠 못할 정
도로 평壤은 변해있었다.

차가 어디인지 알고 싶었고 가보고 싶었다. 그러나 위치를 가늠할 수 없었다. 나중 평양만방 나흘째인 4월30일에야 겨우 평양으로 박이를 만들 수 있어서 그의 말을 듣고 어슬프레 옛 위치와 대비시켜보긴 했으나 너무 복잡었다.

옛인들이 서있던 자리는 언덕이 깎여진 지금은 만주대사의당과 인민화술관을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바로 그곳이라고 했다.

2백만 평양인구중 토박이는 20%밖에 되지않는다는 그의 설명이다. 옛일을 기억할만한 60대전후의 세대도 별반 찾기 힘든 평양에서 옛 동명과 거리명들을 가지고 위치를 가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실험이 다시 찾아와 옛 살림집을 정확히 짚어내기도 불가능하게 평양은



29일 오전 平壤만주대의사당에서 개막된 제5차
—PU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韓國대표단。
도아 4.30 △平壤—국회공동추재단贈

환경현황

8박9일의 평양체제를 통해서 얻은 성과 중 하나를 꼽는다면 북한의 환경보호관계의 인사들을 만나 북한의 환경현황을 알아보는 한편 비무장지대의 생태계 공동조사문제와 임진강 수질 오염 공동조사문제 등 남북이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환경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일이다.

정무원·환경보호국의 국장, 과학원 환경보호연구소의 실장, 과학원 생물분원의 부원장 등 환경관련 고위책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남북 환경공동대책위원회 구성문제나 남북한의 환경문제 현황과 대책에 관한 세미나 개최 등이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북한쪽의 환경관련

공업은 분산배치하며 도시와 격리시키는 것이 북한의 정책이라고 한다. 공업의 집중지역인 함경남북도(중) 우리가 본 지역은 농업지대와 관광지역이어서 다락밭(계단식밭)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문제에는 충격을 받았으나 북한의 환경문제는 남한만큼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람과 자동차가 적으며 적게 쓰고 적게 버리고 공장도 적고 보면 공해도 적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도로에 유동량이 적은 것이 눈에 띄었는데 그들은 원료가 있는 곳에서 그곳의 인력으로 생산해서 그 지역사람들이 쓰고 있다고 했다. 그곳의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그리고 신속한 소통 등으로 우리 대표단들은 피곤을 잊을 정도였다.

숙소에서 내려다보이는 대동강에는 준설기가 설치되어 있었

다(정화해서 배출한다고 설명이 있기는 했다).

북한에서는 정무원의 비상실 환경보호위원회 산하에 환경보호국이 있다. 환경보호국은 보건부·도시경영부·육해운부 등 관련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환경보호감독권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휘하고 있다. 환경관련자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술홍보체계와 위원회, 각 부의 새기술홍보체계를 통해 전달·보급하고 있다고 한다.

법률로는 환경보호법이 있는데 법을 위반하여 사람의 건강과 국가 또는 사회공동체재산에 피해를 준 기관·기업소·단체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손해를 배상시킨다고 한다. 특히 기업활동이 독립채산제로 변경된 뒤에 환경보호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대동강을 비롯한 주요 하천들의 수질오염 측정은 5일에 한번씩 하고 있었다. 측정항목은 32종으로 그중에는 아질산성 질소, 기름, 유기염소, 규산, 우라늄, 방사능 등 남쪽에는 없는 것들

환경요원 양성등 예방차원 철저

**‘적게 쓰고 적게 버리기’ 오염 심각치 않아
 생태계 훼손 우려 묘향산 금광개발도 보류**



박영숙 의원이 평양을 가로지르는 대동강의 깨끗한 물을 떠보고 있다. 동강물의 오염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손

담양자들도 알게 되어 앞으로 양쪽 연락창구를 통해 우리들의 관심사를 구체화시킬 수 있게 됐다.

나의 일정관계로 세번이나 약속을 변경했는데도 북쪽의 환경전문가들이 밤늦게 숙소인 초대소까지 찾아와 질문에 답해주고 18가지나 되는 자료요청에도 응해준 뜻밖의 호의는 정말 고마웠다. 전례준 자료가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잊지 않고 정중한 방법으로 전달해 준 배려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의 환경현황을 살필 수 있는 기회는 따로 주어지지 않았다. 우리들의 활동반경에서 보고 느끼고 살피고 한 것 뿐이어서 유감이다.

다. 수심을 깊게 하기 위한 준설작업이라고 한다.

평양의 통일로에는 올해말 준공예정인 5만채의 주택공사가 한창이었다. 혹시 골재채취를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팔당호의 골재채취로 인한 한강의 수질오염현상을 연상했으나 대동강 물에 손도 담겨 보고 눈으로 맑은 물을 확인하는 순간 어느 쪽이 되었건 현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북한 당국에서는 대동강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순천 비닐공장의 폐수를 서해안으로 배출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산으로 100mm관을 100km나 설치했다는데 예산도 예산이려니와 서해안의 해양오염이 걱정되었

이 있는가 하면 철, 망간, 황산이온, 세제, 트리할로메탄(THM) 등은 측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와 차이가 있었다.

골프장은 평양 어디엔가 한곳이 있다고 했고 쓰레기문제는 별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았다. 북한에서는 가정이나 공장에서 나온 쓰레기는 대부분 재활용하거나 물리·화학적 처리를 거쳐 비료로 재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쓰레기 처리시설이나 매립장 또는 하수처리시설 등을 직접 가보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세제도 대부분 세탁공장에서 공동세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제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은 비교적 통제가 쉬워 보였다. 환경보호 전문가의 양성은 김일성종합대학 등 50여개의 대학에서 100여개의 학부를 두고 계획적으로 환경보호분야의 과학기술을 교육하고 있다고 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아직 피부로 느끼지 않고 있는 북한에서 이렇게 많은 환경요원을 키우는 이유에 대해 쉽게 납득이 안 가는 점도 있었으나 예방차원의 대비가 더욱 중요한 게 환경문제라고 볼 때 앞을 내다보는 대책이라고 생각했다.

금강산 공동개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중에 묘향산의 금광을 개발하고 싶어도 자연과 생태계 훼손 때문에 아직 보류하고 있다는 북쪽의 설명을 들으면서 남쪽 설악산의 무계획한 개발, 골프장건설 등에 대한 따끔한 충고가 아닌가 싶었다.

환경문제 시민단체가 있지도 않지만 아직 문제의식이 덜한 그곳에서 시민운동의 흔적을 찾는다는 것은 무의미했다.

환경문제에 관한 한 남과 북이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공동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
 있는
 것은
 아니
 라고
 생각
 한다
 그러나
 우리
 도
 그런
 것
 이
 있
 기
 때문이다